

수용과 번역 : 청말시기의 셰익스피어

金 素 貞*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글 | III. 20세기 초기 셰익스피어의 번역 |
| II. 19세기 셰익스피어의 수용 | IV. 마무리 |

I. 들어가는 글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유럽,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왔다. 국내학계에는 동아시아 3국 한국, 일본, 중국에서의 셰익스피어 작품의 번역과 수용사에 관해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¹⁾ 그런데 연구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1930년 이후의 사례에 국한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²⁾ 이에 비해 중화권과 영미권에서는 19세기부터 시작한 중국의 셰익스피어 수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수연구원

- 1) 신정옥, 《셰익스피어 한국에 오다: 셰익스피어의 韓國受容過程 研究》, 白山出版社, 1998; 하경봉, 〈日本 셰익스피어 公演史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2) Dongchoon Lee(이동춘), Chaehong Pang(방채홍), “Shakespeare in China: Ideology, the People, and Propaganda”, 《셰익스피어 비평》 41:2, 2005; 이태준, 〈梁實秋의 문학사상과 ‘셰익스피어’ 번역〉, 《중국문학이론》 8, 2006; 김수진, 〈老舍 텍스트에 재현된 햄릿 이미지—소설 〈신햄릿(新韓穆烈德)을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41, 2013. 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의 셰익스피어 번역에 관한 연구이고, 후자 2편은 1930년대 이후 셰익스피어의 번역과 수용에 대한 연구이다.

용에 관해 체계적이면서도 심도 깊은 연구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19세기와 20세기 초기 중국의 셰익스피어 수용에 주목함으로써 국내학계의 연구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중국이라는 수용문화권에서 셰익스피어가 어떤 궤적을 밟아 수용되었는지, 그리고 20세기 초기 동아시아 3국의 셰익스피어 수용과정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차이점, 그리고 상호간의 영향관계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셰익스피어는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번역과 공연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편적인 소개를 통해서였다. 사실 셰익스피어 원작의 번역은 1921년 5.4 극작가 전한(田漢)의 《哈孟雷特(햄릿)》가 출간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⁴⁾ 이는 셰익스피어의 이름이 중국사회에 알려지고 나서도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한권의 번역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인데, 청말시기 셰익스피어 수용은 문학개혁의 요구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라 문화개혁의 요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서구열강의 침입과 봉건왕조의 몰락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모델을 구상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중국의 정치, 역사적 상황에서 셰익스피어는 서구문화의 우수성을 대변하는 위대한 작가의 이미지로 수용되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수용문화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셰익스피어 희극작품이 담고 있는 역사적, 종교적, 정치적 가치에 대한 인식 없이 서구문화의 가치를 대변하는 우상으로 맹목적으로 추앙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셰익스피어 원작이 번역되기 이전 즉 셰익스피어 수용의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시간 순서대로 고찰하려 한다.

3) 대표 연구성과로 周兆祥(1981), 孟憲強(1994), 曹樹鈞 等(1989), Ruru Li(2003), Murray J. Levith(2004), Alexander C. Y. Huang(2009) 등이 있다.

4) 《햄릿》의 제1막 제1장~3장까지 번역한 부분을 1921년 《少年中國》 잡지 12권2기에 연재한 뒤, 완역본은 이듬해 1922년 上海 中華書局에서 출판했다. 다만 전한(田漢)의 번역저본은 일역본이었다고 한다. Ruru Li, *Shashibiya: Staging Shakespeare in China*, Hong Kong: Hong Kong Univ. Press, 2003, 15쪽 참조.

II. 19세기 셰익스피어의 수용

셰익스피어를 중국사회에 처음 소개한 이들은 중국지식인 그룹과 유럽 선교사 그룹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국적인 서양문학을 도입하여 중국전통문학을 혁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셰익스피어의 권위와 명성을 활용했다. 이들은 셰익스피어를 데려와 무엇을 하려 했을까?

일반적으로 중국에 최초로 셰익스피어를 소개한 인물은 아편전쟁 때 아편무역을 금지했던 청나라 관료 임칙서(林則徐)라고 알려져 있다. 1839년에 출판된 임칙서의 《사주지(四洲志)》⁵⁾에 보면, “沙土比阿”라는 번역명으로 셰익스피어가 등장하고 있다. 1838년 당시 임칙서는 흙차대신에 임명되어 광둥(廣東)으로 아편을 단속하기 위해 가 있었는데 이 시기 그는 틈을 꾸려 번역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비록 임칙서 자신은 영어를 몰랐고 외국 텍스트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 전혀 없었지만, ‘작’을 알아야 하는 시대적 절박함 속에서 외국출판물의 번역 사업을 추진했다. 《사주지》에서 셰익스피어는 서구지식의 일부로 소개되었는데, 임칙서에게 있어 서구지식은 바로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인이 알아야 할 사전예비지식에 다름 아니었다. 그 당시는 적국 영국에 관한 상세한 지식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영국문화 전반에 관한 지적 욕구가 높았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명성은 영국 빅토리아 시기 최고조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임칙서가 영국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셰익스피어를 소개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힘들다. 《사주지》는 휴 머레이(Hugh Murray)가 쓴 *Encyclopedia of Geography* (지리백과사전)를 번역한 것으로 ‘第二十八節 英吉利國(영국)’에서 셰익스피어는 다음과

5) 《사주지》는 4대륙에 걸쳐있는 30여개의 국가의 지리와 역사에 관해 기술한 책이었으며, 당시 중국인들이 외국의 사회, 지리, 민족, 풍속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같이 기록되어 있다. “케임브리지에서 도서관을 한 곳 세웠으며, 셰익스피어, 밀튼(John Milton), 스펜서(Edmund Spenser), 드라이든(John Dryden) 등 4명은 시문에 뛰어나고 저술도 풍부했다.”⁶⁾ 여기서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르네상스와 왕정복고기를 대표하는 시인과 극작가였던 에드먼드 스펜서, 존 드라이든, 존 밀튼 등과 함께 소개되었다. 이 문장은 뒤이어 “풍속이 탐욕스럽고 난폭하며 사치를 숭상하고 술을 좋아하지만, 기예만은 훌륭하다.”⁷⁾라고 영국인들의 장단점을 짚막하게 개괄한 문장과 나란히 같은 문맥 속에 배치되어 있었다. 이렇듯 《사주지》는 적국 영국의 역사문화와 국민성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셰익스피어를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 구절은 이후 임칙서의 동료였던 위원(魏源)이 편찬한 《해국도지(海國圖志)》에 그대로 인용되었고 이로써 셰익스피어의 이름은 더 널리 알려졌다.⁸⁾ 《사주지》는 초판 이후 다시 찍어내지 않았지만, 《해국도지》는 1843년 초판이 나온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과 확충을 거쳐 재판을 거듭했을 뿐 아니라 이웃 조선과 일본에까지 전파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이름은 전세계 각국의 역사 및 지리에 관한 백과사전식 저작의 지면을 빌어 19세기 중반 중국지식인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적을 알자’라는 취지에서 편역한 저작을 계기로 중국사회에 최초로 소개된 셰익스피어는 그 이후, 중국에 왔던 유럽 선교사가 쓴 글에서 지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영국 선교사 윌리엄 머헤드(William Muirhead; 중국명 慕維廉)가 1856년 상해(上海) 묵해서관(墨海書館; The London Missionary Society Press)에서 출간한 《大英國志》⁹⁾ ‘卷五 都鐸爾朝(Tudor

6) “在感彌利赤建書館一所，有沙士比阿、彌爾頓、士達薩、特彌頓四人工詩文，富著述。”林則徐著，張曼評注，《四洲志》，北京：華夏出版社，2002，117쪽.

7) “俗貪而悍，尚奢嗜酒，惟技藝靈巧。” 같은 책，117쪽.

8) 위원은 1942년 임칙서의 부탁을 받아 사주지를 기초로 해국도지를 편집하기 시작했는데 1843년 50권을 완성한 뒤, 1847~48년에 60권으로 확충했으며, 1852년에는 100권으로 완성했다. 《해국도지》 제50권 “大西洋(歐羅巴洲)英吉利國總記”에서 위원은 《사주지》의 본 문구를 거의 그대로 베껴왔다.

dynasty)’의 ‘以利沙伯紀(엘리자베스 본기)’에 셰익스피어는 ‘舌克斯畢’라는 번역명으로 기술되어 있다. “나라의 문교(文教)를 진작시키기 위해 엘리자베스 시대에 창작된 시문은 미와 선을 모두 갖추고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다. 작가들 중에 시드니(Philip Sidney), 스펜서(Edmund Spenser), 롤리(Sir Walter Raleigh), 셰익스피어, 베이컨(Bacon), 홉스(Thomas Hobbes) 등은 모두가 아는 명사이다. …… 이들이 쓴 책은 문채를 숭상하지 않고 사리에 부합하였다.”¹⁰⁾ 본 저작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 앞에 ‘大’자를 붙여 중국인의 ‘大清’ 즉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의식에 맞서려는 의도가 농후한 책이었다. 영국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대영국지》에서 셰익스피어는 화려한 문사를 쓰지 않고 사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인류의 미와 선을 작품 속에 녹여낸 훌륭한 작가로 격찬 받고 있었다. 또 1882년 미국 선교사 데벨로 제로토스 셰필드(Devello Zelotos Sheffield; 중국명 謝衛樓)의 《만국통감(萬國通鑑)》에도 “영국 시인 셰익스피어는 희극 창작에 능해서 슬픔과 기쁨의 묘사가 극치에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 호머 이후로 아무도 따라오지 못했다.”¹¹⁾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1896년 영국 선교사 조셉 에드킨스(Joseph Edkins; 중국명 艾約瑟)가 편역한 《서학약설(西學略述)》의 〈근세사곡고(近世詞曲考)〉에서도 “영국에서 가장 저명한 사인은 셰익스피어이다. 무릇 그가 창작한 사곡은

9) 《대영국지》는 Thomas Milner의 *The History of England: From the Invasions of Julius Caesar to the Year A.D. 1854*의 번역서이다.

10) “俾國中文教日興，當以利沙伯時，所著詩文，美善俱盡，至今無以過之也。儒林中如錫的尼、斯本色、拉勒、舌克斯畢、倍根、呼格，皆知名士。……所著書不尚文采，切於事理。”鄒振環，〈《大英國志》與晚清國人對英國歷史的認識〉，《復旦學報(社會科學版)》2004年第1期，42쪽 인용. 참고로, 중국어로 음역된 엘리자베스 시기의 영국작가 이름은 Thomas Milner의 원서를 참조하여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Thomas Milner, *The History of England*, London: Religious Tract Society, 1853, 499쪽 참조.

11) “英國騷客沙斯皮爾者，善作戲文，哀樂罔不盡致，自侯美爾之後，無人幾及也。”郝嵐，〈莎士比亞在1916年前的中國〉，《清末小說から(通訊)》91號，2008，18쪽 인용.

인간의 희로애락을 푼진하게 묘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게다가 경험도 깊어서 선한 자와 악한 자, 신분이 존귀한 자와 비천한 자의 부류를 구분하여 그 모습을 완전히 다 묘사해낼 수 있었다. 허비되는 대사 없이 정황이 모두 드러났다.”¹²⁾ 이렇듯 서양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서양선교사들의 저작 속에서 셰익스피어는 고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영국의 대문호로 칭송되었다.

그런데 19세기 말로 오면서 서구 열강의 잇따른 침략과 갑오전쟁의 패배로 인해 중국지식인들의 관심은 ‘적을 알자’라는 수사에서 벗어나 조국의 자강과 부흥을 위해 서양의 학문과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문제에 골몰했던 번역가 엄복(嚴復)은 토마스 헉슬리(Thomas Huxley)의 *Evolution and Ethics* (진화와 윤리)를 번역한 《천연론(天演論)》¹³⁾에서 셰익스피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희곡작가 셰익스피어는 “(명나라) 만력 연간에 해당하는 시기의 영국 시인이자 극작가이다. 전해 내려오는 작품은 각 국에서 번역되고 소중히 여겨졌다.”¹⁴⁾ 이 문구는 인간의 성정은 진보하거나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셰익스피어가 묘사한 인물들이 갖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맥락에 위치해 있었다. 근대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던 중국지식인들에게 셰익스피어는 사상과 윤리의 대안적인 양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인류의 천재로서 적극 수용되었다.¹⁵⁾ 그로 인해 영국의 국민 시인이자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침략국가에 대한 중국인들의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2) “英國一最著聲稱之詞人，名曰簡斯比耳。凡所作詞曲，於其人之喜怒哀樂，無一不口吻逼肖。加以閱曆功深，遇分譜諸善惡尊卑，尤能各盡其態，辭不費而情形畢露。” 郝嵐，같은 논문，18쪽 인용.

13) 《천연론(天演論)》은 光緒23年11月(1897년12월) 《國聞報》의 중간호 《國聞彙編》에 연재된 후, 이듬해 1898년에 호북성(湖北省) 면양(沔陽)의 신시기재(慎始基齋)에서 단행본으로 정식 출판되었다.

14) “狹斯不爾萬曆間英國詞曲家，其傳作大爲各國所傳譯寶貴也.” 엄복 지음, 양일모 등 옮김, 《천연론》, 소명출판, 2008, 305쪽.

15) Alexander C. Y. Huang, *Chinese Shakespeare: Two Centuries of Cultural Exchang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2009, 53-54쪽 참조.

근대를 창조하는 영감의 원천으로 자리매김 했다.

한편, 이상의 단편적인 소개와는 달리 셰익스피어 희극은 영국에 갔던 중국 사신들에 의해 직접 경험되기도 했다. 흠차대신 곽송도(郭嵩燾)는 중국 외교관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갔던 인물이었다. 그는 1879년 1월 18일 런던의 라이시엄 극장(Lyceum Theatre)에서 헨리 어빙(Henry Irving)이 주연한 ‘햄릿’을 관람했다.¹⁶⁾ 관람한 후의 소감은 그의 일기에 적혀있다. “저녁에 마가렛의 초청을 받아 런던의 라이시엄 극장에 가서 셰익스피어 희극 공연을 관람했다. 오로지 줄거리를 꾸미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현요함을 중시하지 않았다.”¹⁷⁾ 너무 간략한 기술이어서 공연의 자세한 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곽송도가 ‘햄릿’의 공연예술이나 시적 언어표현보다는 줄거리 전개에 더 큰 인상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곽송도의 이런 반응과는 달리 당시의 영문 리뷰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생각하는 햄릿을 본다. 우리는 그가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마음을 확실히 본다. 터질 것 같은 슬픔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우리는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¹⁸⁾고 적고 있다. 그리고 헨리 어빙 본인도 ‘명상적이고, 지적이며, 민감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햄릿을 연기해내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즉 복수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공 햄릿의 인물 묘사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이다. 영문 리뷰

16) 헨리 어빙의 ‘햄릿’은 1874년 10월 초연되었고 1885년까지 200회 공연을 기록한 영국 연극계의 메이저급 공연이었다. Jeffrey Richards, *Sir Henry Irving: A Victorian Actor and His World*, London: Bloomsbury Continuum, 2005, 123쪽 참조.

17) “是夕，馬格里邀赴來西恩阿摩戲館，觀所演舍克斯畢爾戲文，專主裝點情節，不尚炫耀。”(光緒4年12月26日，1879년 1월 18일) 郭嵩燾 著，鍾叔河 主編，〈倫敦與巴黎日記〉，長沙：岳麓書社，1984，873쪽.

18) “We see Hamlet think. We do not merely hear him speak, we positively watch his mind. We feel and know the man overburdened with this crushing sorrow, with his mind unhinged.” *Era* 1874년 11월 1일자. Richard Foulkes, *Performing Shakespeare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2002, 106쪽에서 인용.

와 어빙의 자술을 통해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어빙의 ‘햄릿’ 공연의 강조점은 플롯 전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햄릿’의 줄거리에 주목한 반응은 당시 중국인들의 보편적인 양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 갔던 중국 대신 증기택(曾紀澤)도 1879년 런던에서 ‘햄릿’ 공연을 관람했는데¹⁹⁾, 그의 일기를 보면 광송도와 마찬가지로 공연예술이나 무대장치 혹은 햄릿의 인상적인 독백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단지 줄거리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청신(淸臣), 송생(松生), 일재(逸齋), 상포(湘浦), 성재(省齋) 등과 함께 극장에 가서 연극을 관람했다. 공연 내용은 덴마크의 모 왕이 형을 시해하고 형수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형의 아들이 복수하는 내용이었다. 자시(밤 11시~1시 사이—필자 주) 경에 끝났다.”²⁰⁾ 이처럼 햄릿을 관람한 청나라 사신들의 최초의 반응은 놀라움 정도로 유사했다. 그들이 강조한 셰익스피어의 이국성은 줄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그들에게 있어 셰익스피어는 중국을 서양, 특히 영국과 이어주는 허구적인 타자에 다름 아니었다.

Ⅲ. 20세기 초기 셰익스피어의 번역

중국 지식인 사회에 그 명성이 널리 알려졌던 셰익스피어는 20세기로 접어들자마자 드디어 번역을 통해 중국독자와 만나게 되었다. 1903년(光緒 29年) 상해 달문사(達文社)에서 간행한 《瀕外奇譚(바다 멀리서 온 기이한 이야기)》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는 셰익스피어 원작의 번역이 아니라 영국작가 찰스 램(Charles Lamb)과 메리 램(Mary Lamb) 남매가 아동을 위해 산문으로 쉽게 고쳐 쓴 *Tales From Shakespere*(셰익스피어 이야

19) 그가 보았던 ‘햄릿’도 아마 광송도가 보았던 헨리어빙의 ‘햄릿’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Alexander C. Y. Huang, 앞의 책, 56쪽 참조.

20) “夜飯後，諸淸臣、松生、逸齋、湘浦、省齋至戲園觀劇。所演爲丹國某王弑兄妻嫂，兄子報讎之事。子初乃散。”(光緒5年3月7日，1879년 3월 29일) 曾紀澤 著，王傑成 標點，《出使英法俄國日記》，長沙：岳麓書社，1985，184쪽.

기, 이하 ‘*Tales*’)를 번역한 것이었다. 《해외기담》은 *Tales*의 완역본이 아니라 그 가운데 10편만 골라 중국 명청대 백화단편소설의 반고반백(半古半白) 문체를 빌어 번역한 발췌역이었으며,²¹⁾ 번역전략에 있어서는 자국화 번역(domesticating translation)을 취했다. 이 때문에 본서는 전반적으로 중국 백화단편소설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예를 들자면, 개별 고사에 붙인 제목은 백화단편소설에서 줄거리를 담아내는 8글자 제목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였으며(아래 <표-1:《瀕外奇譚》 목차> 참조), 장면과 인물 묘사를 장황하게 늘어뜨려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는 서사방법을 빌려왔고, 인명을 번역할 때도 중국식 인명으로 고쳐서 번역했다.²²⁾ 그리고 본서의 원저자가 램 남매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英國素士比亞”라고 표기하여 셰익스피어의 명성에 편승하여 주목을 끌고자 했으며, 번역자가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번역자는 “서례(敘例)”를 통해 셰익스피어의 생애와 작품 세계, 그리고 번역의 동기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책은 영국 셰익스피어(1564년 출생, 1616년 사망)가 지은 것이다. 셰익스피어 씨는 절세의 명배우이며, 시사(詩詞)에 뛰어났으며, 그가 쓴 희본(戲本)소설은 일세를 풍미하여 영국의 공전의 대가로 받아들여졌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에 널리 번역되어 거의 읽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래의 학계에서 시사(詩詞)소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항상 셰익스피어를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여태껏 그 책을 구해 읽어보지 못하여 나는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여겨왔다. 그래서 급히 이 책을 역술하니, 소설계에 이채를 보탬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은 원래 시체(詩體)였지만, 영국 문인 램이 산문으로 고쳐 제목을 *Tales From Shakespere* 라고 붙였으며, 그 가운데 가장 빼어난 작품 10장을 골라 지금의 제목을

21) 10편의 고사는 희극 7편, 로맨스 2편, 비극 1편으로 대부분 희극에 편중되어 있었다.

22) 일례를 들자면, <Hamlet, Prince of Denmark>를 번역한 <第十章 報大仇韓利德殺叔(큰 원한을 갚기 위해 햄릿이 삼촌을 죽이다)>에서 햄릿(Hamlet)을 “韓利德”, 거트루드(Gertrude)를 “朱通鳥”, 클로디어스(Claudius)를 “葛洛兆” 등으로 번역했다.

붙였다.”²³⁾

셰익스피어의 명성은 이미 중국지식인 사회에 알려진지 오래 되었지만 번역서는 정작 한 권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기담》을 내놓게 되었다고 번역자는 번역 동기를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의 번역서가 소설계에 게 참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랐다. 청말시기 대개의 번역문학이 저본을 명시하지 않았던 분위기 속에서도 번역의 저본이 램 남매의 *Tales*임을 분명하게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해외기담》은 출간 직후 《中外日報(*Universal Gazette*)》에 “서양에서 읽지 않는 사람이 없는 소설 《해외기담》(西洋無人不讀之小說 《瀕外奇譚》)” 제목의 광고를 연재했다. “소설책은 많이 있지만 참신하고 희귀한 서구 문장에서 번역한 것은 드물다. 이 책은 영국의 절세의 명배우 셰익스피어가 지은 것으로, 줄거리가 기묘하고 재미가 진하고 깊어서 서구의 남녀들이 모두 앞 다투어 읽는다. 20여권이나 인쇄하여 낙양의 지가(地價)를 올릴 정도였다. 지금 본 달문사에서 번역하여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한 부에 5각(角)이며, 각 서점에서 위탁 판매한다. 총발행소: 신마(新馬)거리 각현리(覺賢里) 달문사.”²⁴⁾ 광고에서는 최초의 셰익스피어 번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기묘한 줄거리로 인해 서양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함으로써 독자의 독서욕망을 자극했다. 사실 본 광고가 연재되었

23) “是書爲英國索士比亞(Shakespeare, 千五百六十四年生, 千六百一十六年卒)所著。氏乃絕世名優, 長於詩詞, 其所編戲本小說, 風靡一時, 推爲英國空前大家, 譯者遍法、德、俄、意, 幾於無人不讀, 而吾國近今學界, 言詩詞小說者, 亦輒嘖嘖稱索氏, 然其書向未得讀, 仆竊恨之, 因亟譯述是編, 冀爲小說界上增一異彩。是書原係詩體, 經英儒蘭卜行以散文, 定名曰 *Tales From Shakespeare*, 茲選譯其最佳者十章, 命以今名。”施蟄存 主編, 《中國近代文學大系·翻譯文學集3》, 上海: 上海書店, 1991, 317쪽.

24) “小說書多矣, 而譯自西文新穎奇離者卒鮮。是書爲英國絕世名優索士比亞所著, 情節奇妙, 趣味濃深, 泰西男女, 人人爭讀。重印至念餘版, 幾於洛陽價重。茲經本社譯出, 以餉同好。每部大洋五角, 各書坊均有寄售。總發行所: 新馬路覺賢里達文社。”《中外日報》1904年 1月 28號.

던 1904년 1월 무렵에는 서양의 대문호 작품 위주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정치소설, 정탐소설, 과학소설, 모험소설 등의 계몽적 성격을 띤 통속소설류의 번역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번역문단의 풍토와는 대조적으로 본서는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번역했다는 점을 특별히 선전한 것이다. 그런데 서양에서 셰익스피어가 큰 인기를 모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기묘한 줄거리 때문은 아니었다는 점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다. 위 광고는 중국번역가가 체험한 독서 경험을 서양인의 독서경험으로 자의적으로 치환함으로써 셰익스피어를 전유하였음을 보여준다.

《해외기담》은 셰익스피어의 수용사에서 ‘최초’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번역서이지만,²⁵⁾ 그 당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출판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번역대가 임서(林紓)의 완역본 《吟邊燕語》가 나오으로써 신속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²⁶⁾

〈표 1〉 《瀕外奇譚》

장	제 목	원 제	장르
第一章	蒲魯薩貪色背良朋 (프로티어스가 색을 탐하여 훌륭한 벗을 배신하다)	The Two Gentlemen of Verona	희극

25) 최초로 갖는 가치 때문에 근대번역문학의 정전의 반열에 올라 施鰲存이 주편한 《中國近代文學大系·翻譯文學集》에 수록되었다.

26) 《해외기담》이 《음변언어》에 비해 대중적 인기를 끌지 못했던 이유로 일본 학자 세토 히로시(瀬戸宏)는 정련되지 않은 문언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사실 《해외기담》은 문언이 아닌 명칭시기 백화단편소설에서 사용한 반고반백의 문체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그것의 대중적 실패 요인을 언어문체가 아닌 서사기법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중국 소설의 전통에서 봤을 때 문언필기소설의 형식을 빌린 《음변언어》에 비해 《해외기담》은 백화단편소설의 서사기법—인물 및 장면의 상황하고도 세밀한 묘사가 사건의 빠른 전개를 방해함—을 사용함으로써 재미를 떨어뜨렸던 것이 더욱 큰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瀬戸宏, 〈《瀕外奇譚》について〉, 《中國文芸研究會會報》第322號, 中国文芸研究会, 2008 참조.

第二章	燕敦裏借債約割肉 (안토니오는 돈을 빌리면서 살을 자르기로 약속하다)	The Merchant of Venice	희극
第三章	武歷維錯愛孿生女 (올리비아가 쌍둥이 여인을 잘못 사랑하다)	Twelfth Night; or, What you Will	희극
第四章	畢楚裏馴服惡癖娘 (페트루키오는 나쁜 버릇이 있는 여인을 길들이다)	The Taming of the Shrew	희극
第五章	錯中錯埃國出奇聞 (실수에 실수가 겹쳐서 에페서스 나라에 기이한 소문이 생긴다)	The Comedy of Errors	희극
第六章	計上計情妻偷戒指 (계책에 또 계책을 세워 아내는 반지를 빼내다)	All's Well That Ends Well	희극
第七章	冒險尋夫終諧伉儷 (위험을 무릅쓰고 남편을 찾아내어 마침내 부부가 합쳐지다)	Cymbeline	로맨스
第八章	苦心救弟堅守貞操 (고심하여 동생을 구했더니 정조를 굳게 지키다)	Measure for Measure	희극
第九章	懷妬心李安德棄妻 (질투심에 레온테스는 아내를 버리다)	The Winter's Tale	로맨스
第十章	報大仇韓利德殺叔 (큰 원한을 갚기 위해 햄릿이 삼촌을 죽이다)	Hamlet, Prince of Denmark	비극

앞서도 언급했듯이 *Tales*는 셰익스피어 원작을 아동을 위해 산문 형식으로 바꾸어 쓴 것인데, 사실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은 램 남매가 서문에서 토로했듯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아동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다시 쓰는 과정에서 램 남매는 셰익스피어 원작을 도덕적 올바름의 상징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서문에 보면, “작가

는 이 이야기들이 젊은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욱 바라는 것은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다음의 사실—셰익스피어의 원전 희극은 환상을 풍요롭게 하고, 미덕을 강화시키고, 모든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생각들을 없애고, 모든 맑고 고결한 생각과 행동, 예의, 은혜, 관용, 인간성을 가르치는 교훈, 이러한 덕목들을 가르치는 사례들로 꽉 차 있음을 입증하게 되길 바란다.”²⁷⁾ 셰익스피어 원작이 가진 언어유희, 성적 은어, 함축적 메시지 등이 램 남매의 엄격한 검열을 거침으로써 *Tales*는 도덕적 교훈이 강하게 배여있는 아동용 소설로 변모하였다. 20세기 초기 계몽의 사명을 짊어진 번역가 임서가 이 책을 선택한 데에는 아마 *Tales*가 갖고 있는 도덕적 무게감이 적지 않은 작용을 했을 것이다.

《英國詩人吟邊燕語》(영국 시인이 시를 읊으면서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다)》(이하 ‘음변’)는 1904년(光緒30年7月) 상해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설부총서(說部叢書) 제1집제8편(第一集第八編)으로 초판이 나왔으며, 채 2년도 되지 않아 3판을 찍어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²⁸⁾ 이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셰익스피어의 명성보다도 번역가 임서의 명성이 더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서는 《음변언어》를 출간할 당시 이미 《파리다화녀유사(巴黎茶花女遺事)》(1899), 《흑노유찬록(黑奴籲天錄)》(1901), 《이솝우화(伊索寓言)》(1903) 등의 번역을 통해 번역가로서의 명성이 자라했고, 출판시장에서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던 인기 덕분에 상해 굴지의 출판사였던 상무인서관이 출판에 흔쾌히 응했던 것이다.²⁹⁾ 임서가 *Tales*를 번역하게 된 계기는 구술자 위역(魏易)의 추천 때문

27) Charles Lamb and Mary Lamb, *Tales from Shakespeare*, Weathervane Books, 2007. <http://www.gutenberg.org/files/20657/20657-h/20657-h.htm>

28) [日]樽本照雄, 《新編增補清末民初小説目録》, 齊南: 齊魯書社, 2002, 884-886 쪽 참조. 1930년대에도 3차례 출판되었다는 서지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음변》은 셰익스피어 원전 희극의 번역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9) 번역가로서의 임서의 명성은 《申報》(1904년 9월 11일), 《新聞報》(1904년 9월 12일), 《중외일보》(1904년 9월 22일) 등에 실린 《음변》의 광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문보》의 광고를 보면, “설부총서/영국시인 음변언어/복

이었다. 서문에 보면, “저녁 한가로운 시간에 위군이 우연히 셰익스피어 필기에서 한 두 편을 골라 주어서 나는 등을 밝혀 초고를 쓰기 시작했으며, 이십일 만에 책을 완성하였다.”³⁰⁾ 위역은 1898년 항주(杭州)의 구시서원(求是書院)에서 영어교사로 있을 때 임서를 알게 되었으며, 이들은 그 때부터 함께 번역을 시작하여 1909년까지 무려 45종 가량을 번역했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남다른 이해는 위역이 1890년대 중엽 상해 세인트 존슨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³¹⁾ 두 사람은 1903년부터 경

건 임금님 선생은 소설번역에 뛰어나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데에는 체언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지금 영국 시인 셰익스피어 필기를 또 번역하였다. 셰익스피어는 서구의 시성으로 그가 저술한 것은 극단에서 공연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식지 않고 있다. 이 책은 그 시에 관련된 사실의 기록 20편이다. 선생께서 일일이 제목을 새로 만들었다. 제목은 다음과 같다. 살의 계약, 난폭함 길들이기, 연이은 실수, 사랑을 진정시키기, 원망스런 돈, 신에 의한 재회, 미혹시키는 징조, 병을 고쳐주어 부부가 화해함, 반지의 증명, 딸의 변심, 숲에 모여살기, 혼례식의 소동, 교활한 요정, 딸을 돌려주다, 흑인 장군, 결혼 속임수, 사랑의 유혹, 폭풍우가 일어남. 양장본, 판매가 은화 3원. 상해 상무인서관, 한구, 광주 상무인서관 합동 알림. (說部叢書/英國詩人吟邊燕語/閩中林琴南先生善譯小說膾炙人口毋待贅言. 今又譯英詩人莎士比筆記. 莎爲歐洲詩聖其所著述梨園演唱至今勿衰. 此爲其詩之紀事二凡十則. 先生一一爲製新名. 其目如下. 肉券、馴悍、攣誤、鑄情、仇金、神合、蠱微、醫諧、獄配、環証、女變、林集、禮哄、仙殮、珠還、黑替、婚詭、情惑、颺引. 洋裝册, 售大洋三. 上洋商務印書館, 漢口、廣州商務印書館同啓)” 그런데 본 광고에는 ‘鬼詔(귀신의 명령)’가 빠져 있다. 袁進 主編, 《中國近代文學編年史—以文學廣告爲中心(1872~1914)》,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3, 178쪽 인용. 《신보》 광고는 陳大康이 정리한 《中國近代小說史料—《申報》小說史料編年(四)》, http://wxyc.literature.org.cn/journals_article.aspx?id=421, 《중외일보》 광고는 [日]樽本照雄, 《林紓研究論集》, 大阪: 清末小說研究會, 2009, 14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고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30) “夜中餘閒, 魏君偶舉莎士比筆記一二則, 餘就燈起草, 積二十日書成.” [英]蘭姆著, 林紓·魏易 譯, 《吟邊燕語》, 北京: 商務印書館, 1981, 2쪽.

31) 셰익스피어의 초기 수용사에서 상해 세인트 존슨 대학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영어교육에 중점에 두었던 세인트 존슨 대학은 중국에서 최초로 셰익스피어 희곡을 원어로 공연했기 때문이다. 1896년 7월 상하이 세인트 존슨 대학 학생들이 하계 졸업식에서 원어연극 *The Merchant of Venice*(베니스의 상인)를 공연했는데 이 시기 위역은 이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鍾欣志, 《晚清新知識空間裏的學生演劇與中國現代劇場的緣起》, 《戲劇研究》 第8期, 2011,

사대학당 역서국에서 함께 일했는데 《음변》은 이 무렵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임서가 본서를 번역한 이유는 중국 아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중국전통사상 사이의 유사점을 찾아내어 급진적 서구화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대항하고자 했던 것이다. 서문에 보면, “만일 서구인들이 정말 문명화되었다면, 불태우고 금지하여 세상의 지식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것으로써 증명하건데, 저들 가운데 명망과 연배있는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시에 빠져있으며, 집집마다 암송하고 그것도 모자라 극단으로 보내어 극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비들과 부녀자들이 모여 듣고는 모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으며, 사상이 낡았다고 비난하거나 혹은 신과 요괴에 관해 즐겨 이야기하는 것에 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³²⁾ 임서는 서구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를 중국 전통소설의 단점으로 비판받았던 2가지, 사상이 낡고 신괴류를 소재로 하는 것과 연결시켰다. 임서는 중국의 전통문화는 폐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셰익스피어를 이용했다. 임서에게 있어 셰익스피어는 중국문화가보다 우수해서가 아니라, 중국의 전통문인 두보(杜甫)와 대등한 가치를 가진 문학가였던 것이다.³³⁾ “셰익스

23쪽 참조; 蔡登山, 〈林紓의「口譯者」之一：魏易〉, 《全國新書資訊月刊》, 2008年 11月號, 28쪽 참조.

32) “西人而果文明, 則宜焚棄禁絕, 不令淆世知識. 然證以吾之所聞, 彼中名輩, 耽莎氏之詩者, 家弦戶誦, 而又不已, 則付之梨園, 用爲院本. 士女聯鑾而聽, 欷歔感涕, 竟無一斥爲思想之舊, 而怒其好言神怪者, 又何以故?” [英]蘭姆 著, 林紓·魏易 譯, 앞의 책, 1쪽.

33) 임서와는 대조적으로, 당시에는 셰익스피어 작품의 이질적인 문화 특징을 부각시키고 그를 진보적 인본주의 사상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일례로 청말시기의 유명한 논객이자 개혁가였던 양계초는 1902년 5월호의 《新民叢報(新民叢報)》 지면을 통해 중국문화가와 비교했을 때 셰익스피어가 갖는 우수성을 다음과 같이 칭송했다. “그리스 시인 호머는 고대 최고의 문호였다. 근세 시인 셰익스피어, 밀튼, 테니슨(Alfred Tennyson) 등은 시를 썼다하면 수만자를 헤아렸으니 위대하도다! 문장 표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기백은 진실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다. 중국은 매사가 다른 국가사람보다 낙후했지만

피어의 책은 바로 우리나라의 두보에 비견된다. 의미를 정립하고 단어를 구사함에 있어 종종 신괴 이미지에 기탁했다.”³⁴⁾라고 함으로써 중국문학가와 서양문학가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문화의 전통을 지켜 내고자 했다.

번역전략에 방면에서 《음변》도 《해외기담》과 마찬가지로 자국화 방법을 사용했지만, 양자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중국의 전통을 이용함에 있어 양자는 각기 다른 소설전통에 기대었다. 《해외기담》은 백화단편소설의 전통에 기대면 반면 《음변》은 문언필기소설의 전통에 기대었다. 각 고사의 제목은 문언필기소설의 제목을 모방하여 2글자의 전아한 문언으로 작중 모티브를 드러내었고, 목차 배열도 원저와 달리 했다.³⁵⁾ 또 앞표지 제목 위에 ‘신괴소설(神怪小說)’이라는 표제어를 첨가하였으며, 적지 않은 부분을 축약 번역함으로써 사건을 매우 빠르게 진행시켜 가독성을 높였다. 이로써 중국 독자들은 셰익스피어를 《요제지이(聊齋志異)》를 쓴 포송령(蒲松齡)과 같은 필기소설 작가로 상상했다. 민국시기의 유명한 장서가이자 목록학자 고섭광(顧燮光)이 쓴 평을 보면, “책은 모두 20편으로 되어 있으며, 서양의 옛날 일사를 기록한 것으로 마치 우리 중화의 《요제지이》와 《열미초당》과 같은 부류이다. 작가 셰익스피어 씨는 영국의 대시인이며, 대부분 진귀하고 빼어나며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번역 필치도 전아하고 빼어나고 거침이 없어서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다. 그러한 즉 이 책은 아마도 서구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서술한 외국 《수신기》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³⁶⁾ 《음변》을 통해 회극가 셰익스피어는 괴담과 기담

문학만은 서구와 엇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정심하고, 굵이져 그
 읍하며, 웅위하고, 풍부하고 화려한 기운은 아직 부족하다.(希臘詩人荷馬、古代
 第一文豪也、近世詩家如莎士比亞、彌爾頓、田尼遜等、其詩動亦數萬言、偉哉!
 勿論文藻、即其氣魄、固已奪人矣、中國事事落他人後、惟文學似差可頡頏西域
 …… 然其最精深盤鬱雄偉博麗之氣、尚未足也.)” Ruru Li, 앞의 책, 14쪽 참조.

34) “莎氏之書、直抗吾國之杜甫；乃立義遣詞、往往托象於神怪。”[英]蘭姆 著、林紓·魏易 譯, 앞의 책, 1쪽.

35) 본고의 주석 29번 《신문보》 광고 내용 참조.

을 들려주는 필기소설 작가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콕송도, 증기택 등 중국사인이 런던에서 ‘햄릿’ 공연을 보고 줄거리 전개에 현저한 관심을 보인 것과 함께 《음변》의 독자가 요정, 유령 등이 등장하여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끌고 가는 이야기에 매료된 현상은 중국의 셰익스피어 수용 초기단계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도덕적 교훈을 강조한 램 남매의 *Tales*는 입서의 번역으로 오면서 중국의 유가윤리와 결합하여 그 도덕적 색채가 한층 강화되었다. 여기서 Hamlet, Prince of Denmark(햄릿, 덴마크 왕자)의 번역 〈鬼詔(귀신의 명령)〉를 통해 자국화 번역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주인공 햄릿의 성격과 행동이다. 냉철한 이성을 가진 사색적 햄릿으로 해석한 근대 합리주의적 비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진 햄릿으로 해석한 프로이트의 심리학적 비평, 그리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햄릿으로 해석한 근대 낭만주의 비평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효자’ 햄릿으로 변모했다. 햄릿의 효심은 “전왕의 아들은 효행으로 국민들에게 칭송받았다(前王有子以孝行稱於國人)”, “지극한 효심은 실제로 천성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費孝之心實根天性)” 등의 서술, 그리고 햄릿이 부왕의 유령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 일관되게 부각되었다. 본래 셰익스피어의 원작 *Hamlet*에서는 햄릿 왕자가 아버지의 유령을 처음 봤을 때의 공포감, 그리고 선한 영혼인지 악한 영혼인지 의심하는 심리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은 아니었다. 햄릿은 유령으로부터 복수의 명령을 받은 뒤 임무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고뇌했고 또 그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 때문에 고뇌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딜레마에 심혈을 기울인 탓에 찰스 램도 이 부분을 간과할

36) “書凡二十則，記泰西異時各佚事，如吾華《聊齋志異》、《閱微草堂》之類。作者莎氏，爲英之大詩家，故多瑰奇陸麗之譚，譯筆復雅馴雋暢，遂覺豁人心目。然則此書殆海外《搜神》，歐西述異之作也夫。”顧燮光，《譯書經眼錄·小說經眼錄》，阿英，《晚清文學叢鈔·小說戲曲研究卷》，北京：中華書局，1960，539쪽 참조.

수 없었다. 다만 찰스 램은 복수에 내재된 도덕적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 햄릿으로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온화한 기질에다 약간의 우울증까지 앓고 있던 햄릿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복수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과정을 부각시키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그런 후 유령의 부탁을 “신성한 명령(sacred injunction)”이라 말함으로써 복수의 임무를 짊어진 햄릿을 초자연적 힘에 의해 임무가 부여된 영웅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한 시간의 지연도 그에게는 죄를 짓는 것만 같았고 부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만 같았다.”³⁷⁾ 신성한 정당성이 부여된 복수를 미루고 있는 자신을 자책한 햄릿은 왕 클로디어스와 왕비 거트루드가 보는 앞에서 극중극을 열어 클로디어스의 행동을 관찰한 뒤 그가 살인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된 뒤에야 복수를 완수할 수 있었다. 햄릿이 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행자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통해 찰스 램은 유약한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악의 존재를 사멸하고 선한 존재로 격상되어 가는 기독교적 교훈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결말부에 신성한 임무를 수행한 고결한 왕자에 대한 찬미 — “만일 그가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틀림없이 덴마크의 가장 고귀하고 완전한 왕이 되었을 것이다”³⁸⁾를 별도로 첨가함으로써 그 도덕적 의미를 강화했다.

그런데 《음변》에는 햄릿이 부왕의 유령을 만나는 장면을 “태자는 화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太子知不爲禍)”³⁹⁾고 대폭 축약 번역함으로써 유령에 대한 공포심, 선한 유령인지 아니면 악한 유령인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유령의 말에 내포된 진실성에 대해 의혹을 가지는 햄릿의 모습을 말끔히 지워버렸다. 중국적 ‘漢姆來德(햄릿—임서의 음역)’은 효자였기 때문에 선왕의 유령을 보았을 때 아무 주저 없이 복수의 명령을 따를 것

37) “Every hour of delay seemed to him a sin, and a violation of his father's commands.” Charles Lamb and Mary Lamb, 앞의 책.

38) “and if he had lived, would no doubt have proved a most royal and complete king to Denmark.” 같은 책.

39) [英]蘭姆 著, 林紓·魏易 譯, 앞의 책, 50쪽.

을 약속하였다. 번역자는 이 부분에 ‘泣’이라는 단어를 첨가함으로써 아버지의 불행한 죽음을 듣고 슬퍼하는 그의 효심을 한층 부각시켰다. *Tales*에서 기독교 신의 대행자였던 ‘Hamlet’은 《음변》의 ‘漢姆來德’로 오면서 효성스런 복종을 완수한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에 젖은 인물로 바뀌었다.⁴⁰⁾ 사실 셰익스피어의 원작은 물론이고 램의 텍스트에서도 부왕의 유령은 햄릿에게 ‘복수하라(revenge)’고 명령했지 ‘죽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음변》은 ‘誅’라는 단어를 씌으로써 유령이 복수의 구체적 방법까지 명확하게 일러준 것으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 셰익스피어 원작에서 피의 복수 이면에 내재된 도덕적 정당성에 대해 고민하는 햄릿의 모습은 아예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또 효자 햄릿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유부단하고 행동을 연기하는 햄릿의 이미지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 임서는 햄릿의 용감무쌍한 무용(武勇)을 첨가하기까지 했다. 바로 영국으로 추방당한 햄릿이 해적을 만났을 때 ‘칼을 뽑아’ 해적의 배에 뛰어 들어간 장면이다.⁴¹⁾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이미지도 새롭게 창출했다. 《음변》에서 햄릿은 오페리아의 연인이 아니라 남편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햄릿이 오페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를 클로디어스로 오인하여 실수로 죽인 뒤 ‘목 놓아 우는(大哭)’ 모습을 통해 아내 오페리아에 대한 사랑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다음으로, 햄릿의 어머니이자 왕비 거트루드를 악인으로 규정한 것도 자국화의 뚜렷한 흔적이다. 셰익스피어의 원작에서 거트루드는 다분히 동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사실 셰익스피어의 *Hamlet*은 인물묘사에 있어 선악의 선명한 대립구조를 지향하고 있지 않다. 일례로 부왕 햄릿을

40) 거트루드의 침실에서 햄릿이 어머니 거트루드의 재가를 비난한 것 역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음변》에서는 햄릿의 이러한 동기를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햄릿의 행동 이면에 녹아있는 기독교적 윤리를 무시했다. 서양소설에 녹아 있는 기독교 색채를 삭제한 수법은 위역과 임서가 함께 번역한 《흑노유천록》(1901)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41) “태자는 본래 용감하여 칼을 뽑아 해적의 배로 뛰어 들어갔다(太子素勇, 出刃躍入海盜之舟.)” [英]蘭姆 著, 林紓·魏易 譯, 앞의 책, 53쪽.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로디어스의 경우, 그의 양심적 고뇌와 인간적인 면모가 충분히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유령의 말을 제외하고는 그가 왕을 죽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왕 햄릿을 살해한 사람은 클로디어스가 아니라는 후대의 해석이 나올 정도였다.⁴²⁾ 그런데 *Tales*로 오면 클로디어스의 내적 고민과 살인자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은 모두 단혀 버리고 오로지 악의적 존재로 형상화되었다. 그리고 다시 《음변》으로 오면 그 선악의 대립구도는 훨씬 강화되었다. 그로써 클로디어스는 물론이고 그의 아내가 된 거트루드 조차도 악의 화신으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거트루드의 부덕(不德)과 정숙하지 못한 행동은 그녀의 이름 ‘杰德魯(훌륭한 덕을 갖추지 못하고 어리석다)’을 필두로 하여 “국민들은 모두 왕비가 왕(부왕 햄릿—필자 주)을 모신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했다(國人咸謂後之侍王未有情愔也)”, “어머니가 정조를 잃은 것(其母之失節)” 등의 구절을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Tales*에서 거트루드는 부왕에 대한 기억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기 때문에 햄릿을 실망시킨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즉 그녀가 사랑을 저버린 행위에 강조점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음변》에서는 거트루드가 왕비의 덕을 갖추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왕자는 혼자 생각하길, 선왕의 성덕이 어머니에게서 드러나지 않아 상을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가해서 예법에 어긋났다. 설사 왕실에서 불안을 느껴 (배우자를) 골라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간사한 사람을 배필로 삼아서 안 되었다.”⁴³⁾ 남편이 죽은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때에 재가한 것, 그리고 간사한 인간을 배필로 삼은 이 두 가지 행동은 성덕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왕비에게 용납될 수 없었다. 거트루드의 행위를 전통중국의 정조관과 유가윤리 속에서 해석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했던 전남편에 대한 기억을 재빨리 잊어버린 비정한 면모는 간과되었다. 이처럼 <귀조>에는 효,

42) 피에르 바야르(Pierre Bayard) 지음, 백선희 옮김, 《햄릿을 수사한다》, 서울: 여름언덕, 2011.

43) “蓋自念先王聖德，乃不能得於其母，冒新喪而嫁，而又越禮，即使不安於室，亦宜所擇，不應耦此僉壬。” [英]蘭姆 著，林紓·魏易 譯， 앞의 책， 52쪽.

성덕 등 전통유가사회의 윤리도덕규범이 짙게 배어 있었다.

IV. 마무리

19세기까지 중국에 작품번역은 없이 명성만 알려졌던 셰익스피어는 근대의 정체성을 모색하던 중국의 애국적 지식인들에게 창조적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인류의 천재적 작가로 상상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셰익스피어 원작이 아닌 *Tales*의 번역을 통해 셰익스피어가 중국 독자와 만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셰익스피어의 이미지는 일변했다. 청나라 말기 *Tales*는 아동용 소설로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셰익스피어 시의 출전, 즉 시 창작에 밑바탕이 된 원래의 사실을 소설형식으로 기록한 책으로 이해되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아직까지 아동문학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동을 위한 램 남매의 개작의도를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오로지 *Tales*에 등장하는 요정, 유령, 초자연적인 힘 등이 이끌어 가는 줄거리에 주목한 결과 중국인들은 셰익스피어를 급기야 신괴고사를 창작한 필기소설 작가로 이해하였다. 《음변》은 그보다 1년 앞서 번역된 《伊索寓言(이솝우화)》와 마찬가지로 국민계몽에 이바지하는 유익한 주제를 담은 재미난 이야기라는 점 때문에 중국지식인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Tales*는 유가윤리를 옹호하는 문화전통주의자 임서에 의해 번역됨으로 인해 그 본래적 기독교 윤리가 유가윤리에 의해 대체되었다.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빌려 유가윤리를 옹호하는 《음변》은 상당한 인기를 모았고 청말 민초의 전환기에 셰익스피어가 일반대중에게까지 보급될 수 있었던 원천으로 기능했다. 본서의 영향으로 인해 민국시기에 접어들자마자 셰익스피어는 문명희(文明戲) 형식으로 무대에 올려 졌는데, 1913년 연초에 상해 성동여자중학교(城東女子中學)에서 《女律師(여자 변호사; 원제는 ‘베니스의 상인’)》⁴⁴⁾를 공연했으며, 같은 해 7월 신민사(新民社)가 《肉券(살의

44) 이 공연에 사용한 극본은 포천소(包天笑)가 임서의 〈肉券〉을 개편한 것으로

계약; 원제는 ‘베니스의 상인’)》를 무대에 올렸고, 12월에는 춘류사(春柳社)가 장사(長沙) 수춘원(壽春園)에서 《馴悍(난폭함 길들이기; 원제는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공연했다. 애당초 문명회가 국민계몽을 위해 제창되었던 장르였기 때문에 계몽적이면서 재미난 신괴고사 작가 셰익스피어는 환영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음변》의 각본으로의 각색을 통해 셰익스피어는 일반대중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1910년에 이르러 *Tales*의 새로운 중국버전이 출간됨으로써 중국독자들은 새로운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Tales*에 유가윤리를 덧씌운 《음변》에 대항하는 강력한 적수는 바로 *Tales*의 원문주석본 《原文莎氏樂府本事 附漢文釋義(원문 셰익스피어 악부 본사 중문해석 첨부)》였다. 이는 상무인서관에서 ‘English Classics Series’(영어고전시리즈) 타이틀 아래 영어학습용 교재로 출간한 책이었다. 앞표지에 그려진 공부하는 남학생의 그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쪽에 상무인서관에서 출판한 5종의 영증사전 광고를 통해 본서의 학습용도를 더욱 부각시켰다. 표지에 영문제목 ‘*Tales From Shakespeare: With Chinese Notes*’를 병기했으며, 원저자 램 남매를 단수 “拉穆”로 표기했고 주식자와 교정자를 각각 평호(平湖) 감영용(甘永龍) 주식, 향산(香山) 서선(徐銑) 교정이라고 밝혔다. 편집 형식을 보면 영어원본을 앞부분에 먼저 싣고 난 다음 영어 단어 및 구문의 중국어 해석을 뒷부분에 배치했으며, 20개의 고사를 원문과 동일한 순서로 모두 수록하였다. 1910년 초판이 나온 이듬해 1911년 2판, 1912년 3판을 찍어낼 정도로 높은 판매를 기록했으며, 그 인기는 1930년까지도 이어졌다고 한다.⁴⁵⁾ 셰익스피어 희극 번역가로 유명한 주생호(朱生豪)가 중학교 시절 영어교재로 이 책을 읽었다고 하니, 본서는民国초기 중국 학생들이 셰익스피어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였다.

계몽을 위해 자국화 번역전략을 사용한 《음변》, 그리고 아동문학 *Tales*

《女學生》 잡지 1911년 제16-17기에 연재되었다.

45) 이 책의 출판을 계기로 램 남매의 *Tales*는 《莎氏樂府本事》 제목을 단 새로운 버전의 주석본이 여러 차례 출판되었고, 영증대조본과 중역본도 나왔다.

라는 매개물을 통한 셰익스피어의 간접적 수용은 5·4시기에 이르러 셰익스피어는 원작의 번역과 공연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벤 존슨(Ben Jonson)이 현사한 셰익스피어는 “한 시대의 것이 아닌 만대의 것”이라는 찬사를 계승한 5·4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지향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셰익스피어 원작에서 찾아내기 위한 새로운 대장정에 올랐다. 이처럼 청말시기 셰익스피어 초기 수용사는 20세기는 물론 21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있는 중국적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References>

- Alexander C. Y. Huang, *Chinese Shakespeare: Two Centuries of Cultural Exchang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2009.
- Cao Shujun & Sun Fuliang, *Shashibiya zai Zhongguo Wutai shang* (*Shakespeare on the Chinese Stage*), Shenyang: Harbin Chubanshe, 1989.
- Charles Lamb and Mary Lamb, *Tales from Shakespeare*, Weathervane Books, 2007. <http://www.gutenberg.org/files/20657/20657-h/20657-h.htm>
- Guo Songtao, *Lundun yu Bali riji*(*The London and Paris diary*), comp. Zhong Shuhe and Yang Jian, Changsha: Yuelu shushe, 1984.
- Hao Lan, “Shashibiya zai 1916 nianqian de Zhongguo” (Shakespeare in China 1916 Years Ago), *Shinmatsu Shōsetsu Kara* 91, (2008): 17-24.
- Jeffrey Richards, *Sir Henry Irving: A Victorian Actor and His World*, London: Bloomsbury Continuum, 2005.
- Joscha Chung, “Students’ Theatrical Activities in Late Qing and the

- Beginning of Modern Chinese Theatre”, *Xiju Yanjiu*(*Journal of Theater Studies*) 8, (2011):21-58.
- Meng Xianqiang, *Zhongguo Shaxue jianshi* (*Shakespeare in China: a brief history*), Changchun: Dongbei Shifan Daxue Chubanshe, 1994.
- Murray J. Levith, *Shakespeare in China*,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2004.
- Perng Ching-His, “Dramatic Effect and Word Order in Translation: Some Examples from Hamlet”, *Tamkang Review* 27:2, (1996): 209-227.
- Richard Foulkes, *Performing Shakespeare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2002.
- Ruru Li, *Shashibiya: Staging Shakespeare in China*, Hong Kong: Hong Kong Univ. Press, 2003.
- Seto Hiroshi, “A Study of Xiewai Qitan”, *Zhongguo Wenyi Yanjiu Huibao* 322, 2008.
- Shashibiya, by Lin Shu & Wei Yi trans., *Yin Bian Yan Yu* (*Reciting from afar on joyous occasions*), Beijing: Shangwu Yinshuguan, 1981.
- Shi Zecun ed., *Zhongguo Jindai Wenxue Daxi·Fanyi Wenxueji* (*A Treasury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Translated Literature*) V.3, Shanghai: Shanghai Book Store, 1991.
- Tarumoto Teruo ed., *Xinbian Zengbu Qingmo Minchu Xiaoshuo Mulu* (*New Edition of the Catalogue of Fiction in the Late Qing and Early Republic*), Jinan: Qilu Shushe, 2002.
- Tarumoto Teruo, *Lin Shu Yanjiu Lunji* (*A Essay on Lin Shu*), Osaka: Qingmo Xiaoshuo Yanjiuhui, 2009.
- Thomas Milner, *The History of England*, London: Religious Tract Society, 1853.

- Yan Fu, by Yilmo Yang etc. trans., *Cheon Yeon Ron*(*Evolution and Ethics in Chinese translation*), Seoul: Somyong Press, 2008.
- Yuan Jin ed., *Zhongguo Jindai Wenxue Biannianshi — yi Wenxue Guanggao wei Zhongxin 1872~1914*(*The Chronicle of Chinese Modern Literature — focusing on Literature advertisement 1872 ~1914*), Beijing: Beijing Daxue Chubanshe, 2013.
- Zeng Jize, by Zhong Shuhe annotated, *Chushi Ying Fa Eguo riji* (*Diaries Kept on Diplomatic Missions to England, France, and Russia*), Changsha: Yuelu Shushe, 1985.
- Zhou Zhaoxiang, *Hanyi Hamuleite Yanjiu* (*A Study of “Hamlet” in Chinese Translation*), Hong Kong: Chinese Univ. press, 1981.
- Zou Zhen-huan, “Da Yingguo zhi yu Wanqing Guoren dui Yingguo Lishi de Renshi”(Chronicle of Great Britain and the Chinese People’s Knowledge of the English History in the Late Qing Dynasty), *Fudan Journal* (Social Sciences) 1, 2004.

<Abstract>

This article argues that China how to transformed Shakespeare's reputation and his plays in the late Qing dynasty period. When China encounters the West, the different cultures, she configures them in its own image. Interestingly, in the initial phase of Shakespeare's reception, Shakespeare's reputation took hold well before his work's translation or performance during the 19th century period, through encyclopedias written by Chinese official and European missionaries and Yan Fu's rendition of *Evolution and Ethics* by T. Huxley. They used Shakespeare for certain purposes. Then Chinese readers indirectly encountered

Shakespeare through *Tales From Shakespere* by Charles Lamb and Mary in the turn of 20th century. Two Chinese translation version of *Tales*, anonymous translator's *Xie wai qi tan*(*strange stories from beyond the seas*) and Lin Shu and Wei yi's *Yin bian yan yu*(*Reciting from afar on joyous occasions*), had an influence on Chinese readers who understand Shakespeare, but *Xie wai qi tan* was not so influential as Lin's. Lin Shu used Shakespeare to argue that Chinese culture had value, and categorized *Tales* as *shenguai xiaoshuo*—stories of gods and spirits, in result Chinese readers eventually imagined Shakespeare as a writer of fantastic and romantic stories.

Key Words : 셰익스피어(Shakespeare), 수용(reception), 번역(translation), 청말(late Qing dynasty period), 셰익스피어 이야기(*Tales From Shakespere*), 해외기담(*Xie wai qi tan*), 음변연어(*Yin bian yan yu*), 임서(Lin Shu)